

도시재생, 역사재생,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삼대가 함께 걷는 선미촌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선미촌 너의 정체가 무엇이나?

‘선미촌’, 이름에서 느껴지는 착하고(善) 아름다울(美) 것이라는 뉘앙스와는 달리 이곳은 부끄럽고 폭력적이며 불법적인 공간이다. 후백제가 자리 잡았던 서노송동이라는 점잖은 동네에 자리한 참 역설적인 공간이다.

어떤 도시계획전문가가 선미촌 인근을 걷다가 유리방 형태의 늘어선 업소들을 보고 “이곳은 미용실 거리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처럼 선미촌은 유리방 형태의 업소 40여 곳이 둘러싸여 있는 도심 속 섬 같은 공간이다. 유리방 여성들의 성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한때 이곳은 80~90여개 업소 300여명의 여성들이 성을 판매하던 곳이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점차 축소되어 이제는 40여개 업소 100여명의 여성이 성을 판매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도심한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주 소 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전 화 063-281-2973

팩 스 063-283-2959

이 메 일 ongoul21@hanmail.net



북판에서 성을 매매하는 업소가 불법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1950년대 전주역사 근처에 위치했던 선미촌은 전주시청이 이전해 들어온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도시의 팽창으로 선미촌은 이제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시청의 건너편에 불편한 동거를 유지하고 있다. 60년이란 세월을 전주시와 함께 해 왔음에도 시민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낯선 공간이다. 몇 년 전부터 전주한옥마을에 3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한옥마을로부터 불과 1km 남짓 떨어진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은 시민들에게 낯선 것을 넘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공간이 되었다.

선미촌에는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보다 더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왔던 동네 사람들이 있다. 선미촌은 성 산업이라는 매우 복잡하고 폭력적인 구조 속에 유지되고 있는 곳인지라 이곳을 끼고 있는 서노송동 동네 사람들은 선미촌의 낙인과 불편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자식 상견례 자리에서 거주지를 밝힐 수 없어 외로우며,

자정이 지나서도 취객들의 소음이라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선미촌의 반경 500m 내에 3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어린 시절부터 성매매집결지를 인식하고 학습되어 온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오랜 노력

2002년부터 선미촌 인근에 자리 잡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현장상담소가 선미촌 업소의 여성들을 찾아가는 현장방문상담을 시작하였고, 성매매여성들을 구출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 성 산업이라는 거대한 자본 또는 구조적 폭력과 맞서는 싸움을 지속해 왔다. 2006년부터는 선미촌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선미촌 폐쇄 및 정비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 집행을 촉구해 왔다.

2000년 초반 성매매집결지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여성에 대한 폭력, 매매, 착취 등이 공론화 되었다. 2004년 9월 성매매 방지법이 집행되고 집중 단속이 시작되자 업주들과 주변상인들이 저항하는 시위를 하였다. 전주시는 선미촌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려 하였으나 성매매 업주들이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무산되기도 했다.

불법적인 공간임에는 분명하나 이곳을 없애는 것은 한 목소리의 여성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 가정, 남성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 구조가 늘 부각되곤 하였다.

■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추진 위치도



사업내용

선미촌 정비를 위한 새로운 시작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10년이 되었던 2013년 여름, 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장과 전북여성단체연합의 대표, 전주시의회 의 여성위원이 전주의제21에 선미촌 폐쇄를 위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왔다. 사회와복지분과에 의제를 상정하자 분과에서는 이 의제의 추진을 결의하였고,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 것을 운영위원회에 바로 상정하였다. 복지분과와는 달리 운영위원회의 경우 성 산업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성매매집결지를 없애면 다른 곳으로 숨어들어가는 풍선효과가 날 것이라는 의견, 여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의견, 전주의제21이 추진하기에는 적합한 의제가 아니라는 의견 등 우려사항이 제기됐다. 선미촌 폐쇄 반대의 배경에는 성매매 집결지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컸다. 하지만 여성인권지원센터의 현장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것은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설득이 이루어졌고, 여성운영 위원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합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단,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의제이니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할 것, 폐쇄라고 급진적인 표현보다는 정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완화시킬 것이 주문되었다.

여성,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언론이 참여하는 지역 사회 의제로

2014년 2월 선미촌 정비를 위한 기구인 '선미촌정비민관협 의회'가 만들어졌다. 구성은 그간의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여성단체들, 서노송동의 주민들, 도시계획 전문가들, 언





론사, 경찰, 시의원, 행정의 여성청소년과로 이루어졌으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 전주의제21이 공동사무국을 맡고 여성청소년과가 행정지원을 맡았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 협의회 운영과 사업진행의 주된 실무를 맡았고, 전주의제21은 행정과 협의 채널로서의 실무를 맡았다.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의 첫 해, 주된 사업은 선미촌을 폐쇄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을 이끌어내는 활동이었다. 폐쇄정비에 대한 찬성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폐쇄정비 할 것인가의 방법이 동시에 제안되어야 했다. 방안마련을 위해 협의회내에 선미촌정책팀을 만들어 내부 워크숍을 통해 협의회 위원 및 주민, 시민들과 소통했다. 찬반의 여론들이 지역사회에 공론화되었고, 선미촌이 지역사회에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2014년 초 지방선거에서는 전주시장에 입후보한 모든 정당의 전주시장후보를 찾아가 선미촌 정비관련 정책수립을 이끌어냈다.

문제의 제기보다는 정책제안을 통한 대안 찾기에 초점

협의회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업고,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전주시 도시과에 수립하도록 이끌어낸 것이다. 이 용역은 단순한 도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성 산업과 성매매 여성, 도시재생사업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지역이므로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는 기술용역보다는 지역사와 그 속의 사람들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법을 제시하도록 용역의 전 과정이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진행되도록 설계되었다. 협의회에서 토론되고 구상되었던 여러 제안이 선미촌의 기능전환 용역의 핵심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한 연구, 협의회가 정리해온 선미촌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협의회가 구상했던 기능전환의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용역의 전반적인 내용이 채워졌다.

또한 이 용역사업이 단순 문서 작업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협의회의 의지가 강했다. 보기 좋은 핑크빛 미래를 담은 선미촌 구상안보다는 현실가능한 안이 용역의 결과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이뤄졌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자 행정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다. 그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산출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협의를 거쳐 이후 사업을 추진해 갈 민관합동TF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선미촌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차원의 점진적 개발을 개발방식으로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가, 주민 공동체, NGO 등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의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이곳을 조성해 가는 안이 결정됨으로써 선미촌의 정비 혹은 폐쇄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

시민들과 함께 선미촌을 걷다

지역사회가 선미촌 정비에 대한 바람을 갖도록 시민참여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이 '선미촌 걷기'이다. 우선 선미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다. 여성들에게는 상상 속 공간이었고 남성들도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10시~3시 사이에 시민들과 함께 선미촌을 걸었다. 선미촌 걷기는 참여자들이 선미촌의 모습을 직접 보고 생각하고 논의하며 그 실체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선미촌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방업소 뒷골목은 참혹한 공간이다. 다 허물어진 폐가들이 많고 버려진 쓰레기 더미와 여건이 좋지 않은 주거지들이 뒤엉켜 있다.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몇몇 어르신들이 보증금 없는 셋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낮 시간 동안 잠든 유리방들과 버려진 주거지들이 뒤엉켜 있는 선미촌을 바라보며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공감의 참여자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곳을 함께 걸었던 예술가들, 문화기획자들, 학부모들, 대학생들, 외국인들, 시의원들, NGO활동가들이 이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협의회 정책팀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협의회 정책팀에서는 정리했다. 또한 선미촌의 여성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여성 면담, 선미촌 인근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미촌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협의회 요청으로 경찰에서도 순찰과 단속의 횟수를 늘렸다. 선미촌에 발걸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언론에 이슈화 되고 공무원들이 자꾸 드나들자 성매매업소의 업주들도 분주해졌다. 난데없이 '성노동자의 날'이라는 현수막이 붙기도 하고, 행정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전화가 오고, 업주들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더욱 단속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종사하는 여성이 500명이라고 부풀려 소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선미촌의 정비 방식은 일괄매입하고 불법업소들의 영업을 보상한 후 지역을 모두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걸으로는 어떤 변화도 감지될 수 없었다. 다만 선미촌이 슬렁이고 있을 뿐이었다.



용역과제가 마무리되고 최종보고회 장에서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TF팀이 꾸려질 것이 발표되었다. 한 달 후 전주시

장의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미촌 정비 사업이 발표됐다. 두 달 후 '서노송예술촌팀'이라는 행정조직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건물 또는 부지 매입을 위한 10억 원의 예산이 수립되었다. 2013년 10월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의 구성이 합의된 지 1년 만의 일이다. 10억의 예산으로 선미촌내에 부지를 매입하여 선도 사업 공간으로 행정업무공간과 여성인권단체의 공간을 구성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민관합동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본격적인 사업의 방향과 추진방법 등을 협의, 결정하기로 하였다. 선미촌 정책팀은 여전히 바쁘다. 선미촌기능전환용역의 결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짜내기 위해 행정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안은 선미촌이라는 아픈 기억을 털어내고 주민들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선도공간의 조성 이후 시민편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불법적이며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던 선미촌을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찾아오는 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의 삶이 묻어나는 예술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문화기획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미촌 인근에 들어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업을 개발하여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이곳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 수립 후에 진행했던 시민, 주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전주시를 부르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였다.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는 사업의 방식을 주목하고 찾아왔다. 그리고 전주의 모델을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운동을 하는 지역에 배포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전주 선미촌의 민관협력 실험이 전국의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데 공헌하기를 기대해 본다.

